

## 한글성경 번역을 위한 희구법 카탈 적용의 필요성

박철우\*

### 1. 서론

히브리 동사의 어간형 중 ‘카탈형’은 일반적으로 완료의 의미를 갖는 동사이다. 안드라슨(Alexander Andrason)은 RSV를 바탕으로 한 통계로, 이것이 전체 ‘카탈형’ 중 약 98%에 해당되며, 나머지 중 1.5%가 영어에서 may, can, would, should, must 등의 조동사로 표출되는 가능성, 허락, 의도 등을 나타내는 양태적 동사로 사용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남은 0.5%가 비동사적(non-verbal uses)으로 사용된다고 말한다.<sup>1)</sup>

이 양태 동사적 용례 가운데 성경 번역에 고려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용례가 희구법적 용례들(precative or optative Qatal)이다. 이 희구법적 용례에 관한 이해는 이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론이지만, 그간 일부 이 이론 자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존재해 왔다.

드라이버(S. R. Driver)는 희구법적 용례가 다른 용례와 완전히 부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그 근거 자료도 매우 희귀하다고 보아,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였다.<sup>2)</sup> 그리고 드라이버는 만약 이러한 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 희구법적 카탈이 미래성취에 대한 확신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고 본다.<sup>3)</sup> 최근에는 쿠크(John A. Cook)가 드라이버에 동의하는

\* University of Aberdeen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나사렛 대학교 교수. [cwpark@kornu.ac.kr](mailto:cwpark@kornu.ac.kr). 이 논문은 2017년도 나사렛 대학교의 연구비 지원 과제임.

1) Alexander Andrason, “An Optative Indicative? A Real Factual Past? Toward a Cognitive-Typological Approach to the Precative Qatal”,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3, (2013), 1-42; cf. L. McFall, *The Enigma of the Hebrew Verbal System* (Sheffield: Almond Press, 1982), 186-187.

2)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25-26; cf.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494.

3) S. R. Drive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1892, 25-26. 게제니우스(W. Gesenius)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W. Gesenius, E. Kautzsch and A. E. Cowley, *Gesenius’ Hebrew*

의견을 개진하면서 회구법적 용례들은 일반적인 완료(perfect or past)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이에 반하여 안드라슨은 단어의 의미의 확장은 우연적이거나 작위적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인지과정의 보편적인 특성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리고 언어가 인간사회의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사용됨에 따라 새로운 의미가 파생되고 발달하며 새로운 문법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말하며, 회구법적 카탈도 그러한 역사적 진화를 거친 한 결과라고 주장한다.<sup>5)</sup> 이를 전제로 회구법적 카탈의 용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며 그것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추적한다. 회구법 용례의 대부분은 운문에서 나타나지만, 산문에서도 나타난다.<sup>6)</sup> 이를 통해 그는 회구법적 카탈은 거의 모든 셈어에서 발견되는 한 전형적 특징임을 밝히며(Akkadian, Phoenician-punic, Ugaritic, Syriac, Arabic, Ethiopian languages), 히브리 성경에 나타난 여러 회구법 카탈의 용례들을 제시한다.<sup>7)</sup>

이 이론은 이미 1855년 에발트(Heinrich Ewald)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한 이래로,<sup>8)</sup> 1902년에는 데이빗슨(A. B. Davidson)도 카탈이 가끔 소망을 표현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비록 그가 이것을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하였으나, 그는 이것을 동사 어미활용(suffix conjugation)의 완료 의미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로 보았고, 이 회구법적 의미가 미래 확신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sup>9)</sup> 쥐옹(Paul Joüon)도 카탈의 회구법적 의미를 인정한다. 그는 명사절이 간구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상태완료(stative perfect[‘활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09), 312-313.

4) John A. Cook,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2), 231-232.

5) Alexander Andrason, “An Optative Indicative?”, 1-42.

6) *Ibid.*, 11-12 (대상 17:23-27); cf.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o, 2006), 336-337, ss. 112.k. (대상 17:27; 삼상 24:15); Paul Joüon, *Gra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o, 1965).

7) *Ibid.*, 1-42.

8) Heinrich Ewald, *Syntax of the Hebrew Language*, James Kennedy,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79), 15; *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Bundes* (Göttingen: Dieterich, 1870).

9) A. B. Davidson, *Hebrew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02), 63. 3인칭 회구법 카탈의 예들: 시 6:8; 10:16; 67:6, 7; 107:42; 109:28; 129:4; 애 1:21; 사 43:9; 가능한 용례들, 욥 21:16; 22:18; 2인칭 회구법 카탈의 예들: 시 4:2; 3:8; 7:7; 25:11; 31:6; 56:9; 60:6; 61:6; 85:2-4(?); 119:21; 140:8. 그리고 위에 언급된 본문들의 대부분은 명령법이나 지시법 또는 또 다른 회구법 동사와 연결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J. C. L. Gibson,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4th ed. (T. & T. Clark: Edinburgh, 1994; A. B. Davidson, 3rd ed., 1901), 69. 안드라슨(Alexander Andrason)은 회구법적 의미를 이러한 내재적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설명이라고 비판한다.

용된 형용사' conjugated adjective])가 간구적 뉘앙스를 가질 수 있듯이, 능동완료도 회구적 의미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본다.<sup>10)</sup>

특히 부텐비저(Moses Bultmann)는 각 시편의 문학 분석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전개하였고, 회구법적 카탈은 기도나 탄원의 문맥 속에서 나타나며, 미완료 '익톨'이나 명령형 '커톨'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sup>11)</sup> 그는 이 회구법 카탈의 기원을 고대인의 의식구조 즉 말의 주술적 힘이라는 개념에서 찾는다. 고대인들은, 그들의 소원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발설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회구법은 바로 여기에서 기원한다고 보았다.<sup>12)</sup> 이것을 예언자적 완료와 같은 것으로 본다.<sup>13)</sup> 이스라엘 아이탄(Israel Eitan)도 그의 논문에서 회구법 카탈을 이미 확증된 이론으로 인식하며, 이 회구법 카탈(1st. precativ or optative perfect)에서, 명령적 의미를 내포하는 '바브 + 카탈'로 발전하고(2nd. imperative perfect), 그 후에 이것이 미래를 나타내는 완전한 형태의 '바브 전환법 카탈'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3rd & 4th. future perfect and absolute future).<sup>14)</sup> 이러한 견해는 최근에 에드워드 리핀스키(Edward Lipiński)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sup>15)</sup>

회구법 카탈 이론은 다시 미첼 다후드(Mitchell Dahood)에 의해서 우가릿 문헌 비교를 포함한 다양한 본문분석을 통하여 강화되었다.<sup>16)</sup> 제임스 휴즈(James A. Hughes)는, 히브리어 완료형의 본래적 기능들 중의 하나가 회구

10) Paul Joüon and T. Muraoka,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336-337, ss. 112.k.; 참조, 'adjective'의 한글번역에 대한 새로운 제안[‘속성사’];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48-159.

11) Moses Bultmann,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with a New Translatio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69; 1st ed., 1938), 19-25 (from, “The Importance of the Ten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Hebrew Union College Jubilee Volume [1875-1925]*[1925], 89-111).

12) *Ibid.*, 24, 51.

13) *Ibid.*, 24. 부텐비저(Moses Bultmann)가 제시한 대표적 용례들은 다음과 같다: 시 65:10(51쪽); 21:3, 5b(97쪽); 85:2-4(272쪽); 83:11(342쪽); 47:10(353쪽); 3:8(397쪽); 4:2(401-402쪽); 7:7(418쪽); 9:5, 17(429쪽); 35:22(452쪽); 18:44(457쪽); 83:11(474쪽); 129:4(486쪽); 63:3, 8(518쪽); 9(520쪽); 31:6(598쪽); 32:5(656쪽); 57:7(720쪽); 61:4, 6(758쪽); 64:8(762쪽); 26:12(814쪽); 10:14, 16, 17(428-429쪽); 17:3(479쪽).

14) Israel Eitan, “Hebrew and Semitic Particles: Comparative Studies in Semitic Philology”, *AJSL* 46 (1929), 25-26.

15) Edward Lipiński, *Semitic Languages: Outline of a Comparative Grammar*, 2nd ed. (Leuven: Peeters Publishers, 2001), 525-526.

16) Mitchell Dahood, *The Psalms I: 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The Psalms II: 51-10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8); *The Psalms III: 101-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법(*precativ and optative*)이라고 주장하는 긴스버그(H. L. Ginsberg)를 따르며, 회구법 카탈 이론을 지지한다.<sup>17)</sup> 그는 특히 이 회구법적 카탈을 헬라어의 단순과거 회구법(*aorist optative*)과 탄원이나 간구에서 사용되는 단순과거 명령(*aorist imperative*)과 유사하다고 본다.<sup>18)</sup> 그리고 이 회구법 카탈은 윌트키(Bruce K. Waltke)와 오코너(M. O'Connor)에 의해 수용된다.<sup>19)</sup>

필자는 본 연구를 통하여 다후드(대부분 부텐비저에 의해 이미 제시되었던 용례들)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제안한 회구법적 용례들을 중심으로 이 회구법적 카탈의 의미를 우리말 성경번역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시편(MT)의 처음 6개의 시편(3, 4, 7, 9, 10, 17편) 안에 있는 용례들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회구법 카탈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어온 이 시편 본문들에 대한 국내외 대표적인 번역본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요 학자들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회구법 카탈 적용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번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회구법적 해석의 기준으로 해당 본문의 ‘문맥적 검토’와 함께 회구법 카탈의 전형적인 문법적 문학적 환경인 명령형 사용, 특히 명령형 간구와 회구법 카탈의 병행적 관계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sup>20)</sup> 특히 명령형, 회구양태(*optative*)나 의무유형(*deontic form*)이 선행되지 않는 경우(예, 대상 17:23-27), 전후 문맥의 검토는 매우 중요하며, 진술자(*enunciator*)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표출하는가의 여부 등과, 내용 및 수사학적 특징(간구나 기도를 나타내는 ‘베아타 아도나이[*וַתְּהִי יְהוָה*’]에서와 같은 감탄어 등의 사용여부)<sup>21)</sup>과 본문의 구조적 특징들이 검토될 것이다.

## 2. 한글성경에 적용이 필요한 회구법 카탈의 용례와 그 가능성

### 2.1. 시편 3:7(MT 8)

전통적 번역들은 ‘히키타(*הִכִּיתִּי*)’와 ‘쉬바르타(*עֲבַרְתָּ*)’를 일반적 완료로 번

17) James A. Hughes,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JNES* 29 (1970), 22-23; H. L. Ginsberg, “The Rebellion and Death of Ba‘lu”, *Orientalia* 5 (1936), 177.

18) James A. Hughes,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22.

19)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IBHS)*, 494-495, ss. 30.5.4cd.

20) Mitchell Dahood, *The Psalms I*, 20; Moses Bit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19-25; A. B. Davidson, *Hebrew Syntax*, 63; Alexander Andrason, “An Optative Indicative?”, 10-14.

21) Cf. Alexander Andrason, “An Optative Indicative?”, 10-14 (특히, 11-13).

역한다. NKJ는 이것을 각각 “You have struck”; “you have broken”으로 번역하며(JPS: “thou hast smitten”; “thou hast broken”), 『개역개정』은 이를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라고 번역한다.<sup>22)</sup> 『표준』도 『개역개정』처럼 완료로 번역한다.<sup>23)</sup> NRS(“you strike”; “you break”)와 NJB(“you strike”; “you break”)와 TNK(“you slap”; “you break”)와 『공동』은 이것을 현재로 번역하며 하나님의 속성처럼 서술한다(“나의 하나님, 구하여 주소서. 당신은 내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악한 자의 이빨을 부수시는 분”). 이 번역들도 기존의 완료적 번역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번역과 관련하여 다후드는 ‘키 히키타(כִּי־חִי־יָתָא)’의 ‘키(כִּי)’를 강조용법으로 보고, ‘히키타’를 희구법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O that you yourself would smite all my foes on the jaw! Smash the teeth of the wicked.”<sup>24)</sup> 부텐비저는, 시편 3편이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a cry for help”)이므로, 여기에서 ‘완료’보다 희구법적 해석이 더 적합하며, 특히 7상반절에 나오는 간구(‘명령형’)는 ‘히키타’와 ‘쉬바르타’를 희구법으로 볼 때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고 주장한다.<sup>25)</sup> 앤더슨(A. A. Anderson)과 크레이기(P. Craigie)도 희구법 해석의 타당성을 인정한다.<sup>26)</sup> 특히 7절은 명령형 ‘쿠마(קוּמָה)’로 시작함으로써 전형적인 희구법 카탈의 문학적 문법적 배경을 제공한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 하소서. 정녕 주여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부수소서!’라는 번역이 가능할 것이다. 이 7하반절(희구법 간구[‘히키타’ // ‘쉬바르

22) Cf. Hans Joachim Kraus, *Psalmen I: Ps 1-59*, BK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8), 157 (“Ja, du hast alle meine Feinde auf den Backen geschlagen, zerbrachst der Frevler Zähne”).

23)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년)과 『성경전서 새번역』(2004년), 그리고 『공동번역 성서』(1977년)와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1999년)의 내용이 각각 일치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는 한, 『표준』에는 『새번역』도 포함되며, 『공동』에는 『공동개정』도 포함됨.

24) Mitchell Dahood, *Psalms I*, 15, 19. 로스(Allen P. Ross)는 여기에 ‘키(כִּי, for)’가 나온다는 이유로 이것을 희구법 카탈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지만(Allen P. Ross, *A Commentary on the Psalm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11-2013]), ‘키(כִּי)’는 강조용법으로 자주 나오는 단어이다. Cf. 부텐비저는 시 3:7과 9:4의 희구법 카탈이 강제적 ‘키(emphatic ki)’에 의해 강조되고 있음을 피력한다(Moses Bu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429).

25) Moses Bu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397.

26) A. A. Anderson, *Psalms (1-72)*,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72), 75; Peter C. Craigie, *Psalms 1-50*, WBC (Waco: Word Books, 1983), 70-71 (“Oh, that you would smite...Oh, that you would smash...”).

타’])은, 그 앞의 간구(7상반절: 명령형 간구[‘쿠마’ // ‘호쉬에니’])와 내용적 병행을 이루면서 ‘간구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구체화하며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7상반절[명령형 간구] // : ⇒ 7하반절[회구법 간구]).<sup>27)</sup>

존 이튼(John Eaton)도 다후드의 견해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Smite the jaws of all my enemies and break the fangs of the cruel.”<sup>28)</sup> 보캉(E. Beaucamp)은 7절을 시편 기자가 잠자기에 앞서 행한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호소라고 보며, “Debout Seigneur!”(주여 일어나소서)로 번역한다.<sup>29)</sup> 비교적 최근의 번역인 CEV(1995)는 7-8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Come and save me, LORD God! Break my enemies’ jaws and shatter their teeth, because you protect and bless your people.” 7절에서 회구법 카탈을 잘 살리고 있다.

2010년에 개정된 프랑스어 번역 TOB(*Traduction œcuménique de la Bible*)는 전통적인 번역을 따른다(NRS, NJB, TNK): “Lève-toi, SEIGNEUR! Sauve-moi, mon Dieu! toi qui frappes tous mes ennemis à la mâchoire et casses les dents des méchants.(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구원하소서! 내 모든 적들의 턱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부수시는 주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구원하소서!])” 그러나 현재형 번역인 “tu frappes”(La Nouvelle Bible Segond;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 cf. La Bible Segond 21[“tu gifles”]) 대신에 “toi qui frappes” 문장을 앞의 “Lève-toi”와 연결시킴으로써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명령의 요소를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7절의 회구법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8절의 “르아도나이(לֵאדֹנָי)”의 전치사 ‘르(ל)’를 우가릿에서 널리 사용되는 호격적 ‘르(lamedh vocativum)’로 보아 ‘오 주여’로 번역한다면,<sup>30)</sup> ‘오 주여, 그 구원을 내려 주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백성 위에 내려주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고, 그 간구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sup>31)</sup>

27) 이 구조적 특징과 관련하여 아래의 시 4:1; 7:6; 9:13, 15-16; 17:3 해석 참조; James Hughes,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22 (시 4:1의 명령형 간구와 회구법 완료형의 간구 사이의 병행적 관계); 병행이며 동시에 점진적 내용전개(// and ⇒).

28) John Eaton, *The Psalms*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03), 68-69.

29) E. Beaucamp, *Le Psautier Ps 1-72* (Paris: Gabalda, 1976), 49 (“Ce dernier, avant de s’endormir, lance un ultime appel à Yahvé”).

30) Mitchell Dahood, *Psalms I*, 21; *Psalms III*, 407.

31) Mitchell Dahood, *Psalms III*, 405-406 (다후드[M. Dahood]는 하나님의 별명[divine appellatives]과 연결되어 나오는 호격적 ‘르(ל)’의 용례를 14개 이상 언급하고 있으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 이론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cf. W. Derek Suderman, “The Vocative Lamed and Shifting Address in the Psalms: Reevaluating Dahood’s Proposal”, *VT* 65:2 (2015), 297-312;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IBHS*, 211, ss. 11.2.10i. 각주 96). 그러나 회구법 카탈로 이해된 7절의 2인칭과 8하반절의 2인칭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함으로 그 사이에 있는 ‘르아도나이’도 하나님을 향한 발설로 이해할 때 본문의

## 2.2. 시편 4:1(MT 2)

여기에서 다후드는, ‘히르하브타(הִרְחַבְתָּ)’를 희구법 카탈로 해석하는 이스라엘 아이탄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참조, 부텐비저): “When I call, answer me, O God of my vindication; in distress set me at large; Have pity on me and hear my voice.”<sup>32)</sup>

NKJ(“you have relieved me”)와 NRS(“you gave me room”)와 NJB(“you have set me at large”)와 JPS(“thou hast enlarged me”; cf. TNK[“you freed me”])는 이것을 완료로 번역한 데 반하여, NIV는 이것을 희구법으로 번역한다(“give me relief”). 이 희구법 카탈의 적용과 관련하여 NIV만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있다.<sup>33)</sup> 한글성경에서는 『개역개정』이 이것을 완료로 번역하였으나(“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sup>34)</sup> 『공동』과 『표준』은, NIV와 같이, 이것을 희구법으로 번역하고 있다(『공동』: “나를 빼내 주소서”; 『표준』: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바이저(Arthur Weiser) 역시 NKJ와 NRS와 NJB와 JPS(TNK)의 번역 전통과 일치하는 번역을 하고 있다.<sup>35)</sup> 크라우스(Hans Joachim Kraus)도 전통적인 완료로 번역한다(“In Drangsal schufst du mir Raum[‘In distress you gave me room’]”).<sup>36)</sup> 이 경우 CEV도 완료로 번역한다(“you set me free”). 피터 크레이기는 다후드에 동의하며, 이것을 희구법으로 번역한다(“[When in distress,] give me room”).<sup>37)</sup> 존 이튼은 여기에 과거의 구원이 언급되는 것이

---

내용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경우 ‘르’를 호격적 ‘르(b)’로 읽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러나 8절의 ‘르’를 목적격 전치사로 읽거나 호격적 ‘르’로 읽거나, 7절의 희구법 이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32) Mitchell Dahood, *Psalms I*, 23; Israel Eitan, “Hebrew and Semitic Particles”, 25; Moses Bit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401-402 (“Answer me, O God, when I call, Thou who wilt right me; Give me room and freedom in my distress: Have mercy on me and hear my prayer”).

33) Bruce K. Waltke and M. O’Connor, *IBHS*, 494, ss. 30.5d, 각주 26). 월트키(B. K. Waltke)와 오코너(M. O’Conner)는 일련의 현대 번역성경들이 이 희구법을 간과하고 있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NIV도 매우 소극적으로, 곧 희구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면 기존의 번역들처럼 완료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34) 김이곤은 이것을 ‘과거의 구원 경험을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MT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김정우는 ‘기원형 완료’보다 ‘확신의 완료’로 본다. 김이곤, 『시편 I』, 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202; 김정우, 『시편 I』(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213, 267 (cf. 시 7:6의 경우 희구법 적용).

35) Arthur Weiser, *The Psalms*, OTL (London: SCM, 1962), 119; *Die Psalmen*,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59).

36) Hans Joachim Kraus, *Psalmen I*, 165.

37) Peter C. Craigie, *Psalms 1-50*, 77-78.

너무 갑작스럽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거’로 번역하는 대신 희구법 카탈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in my distress give me room”.<sup>38)</sup>

보깡은 이 경우 단지 운율(4 + 4)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보며, 괄호에 넣어서 별도로 “(tu m’as élargi)”라고 번역한다([나를 자유케 하셨나이다, 완료]; cf. TOB: “Dans la détresse tu m’as soulagé”[내 고통의 짐을 덜어 주셨나이다, 완료]; *La Nouvelle Bible Segond*: “Dans la détresse, tu me mets au large”[현재]; *La Bible Segond 21*: “tu m’as mis au large”[완료]).<sup>39)</sup> 그러나 이 경우(1절의 ‘히르하브타’), 이 단어의 전후에 명령형들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 표현이 희구법으로 쓰였음을 잘 보여 준다(‘아네니[אָנְנִי]’ 응답하소서; ‘혼네니[חַנְּנִי]’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4:1). 제임스 휴즈는 1상반절과 1하반절 사이의 병행을 바탕으로 ‘히르하브타’를 희구법으로 이해한다: “When I call answer me(Impv.)” // “When I am distress make wide (Perf.) for me”(‘ānēnī [명령형 간구] // hirhābtā [완료형 간구]).<sup>40)</sup>

### 2.3. 시편 4:7(MT 8)

이 경우에도 다후드는 ‘나타타(נָתַתָּה)’를 희구법적 카탈로 해석하고, 이 절의 말미에 나오는 ‘라부(רָבוּ)’도 희구법적 카탈로 해석한다(“Put happiness in my heart; now let their wheat and their wine increase”).<sup>41)</sup> 그러나 그는 MT ‘메에트(מַעַת)’에서 ‘메’의 비교급적 의미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약점을 갖는다. 이에 반해 크레이그는 ‘나타타’를 희구법적 용법으로 수용하나 ‘메에트(מַעַת)’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는 장점을 보여준다(“Put more joy in my heart than when their corn and new wine abound”).<sup>42)</sup> 한글성경은 모두(『개역개정』; 『표준』; 『공동』) 현재형으로 번역한다(『개역개정』: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음의 영어 성경들은 완료로 번역한다: NIV(“You have filled my heart with greater joy than”; NRS(NKJ): “You have put gladness in my heart”). 크라우스도 완료형(과거)으로 번역한다: “Du, Jahwe, gabst mir mehr Freude ins Herz

38) John Eaton, *The Psalms*, 70-71.

39) E. Beaucamp, *Le Psautier Ps 1-72*, 50.

40) James Hughes,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22.

41) Mitchell Dahood, *Psalms I*, 22, 27. 다후드는 MT ‘메에트(מַעַת)’의 ‘에트(now)’를 ‘앗타(אָטָא, 시 74:6)’가 잘못 기록된 것(“written defectively”)으로 본다.

42) Peter C. Craigie, *Psalms 1-50*, 77.



als...”(주여, 주님은 나의 마음에 더 큰 기쁨을 주셨나이다).<sup>43)</sup> 다음 번역들은 현재형으로 번역되어 있다: NJB(“Yahweh, to my heart you are a richer joy”; cf. TNK: “You put”[현재형])와 *La Bible Segond 21; La Nouvelle Bible Segond* [“Tu mets dans mon cœur plus de joie”, ‘현재형’, cf. TOB). CEV도 완료로 번역한다(“You brought me more happiness”).

그러나 이 시편은 여러 개의 명령형으로 구성됨으로써<sup>44)</sup> 희구법 카탈을 위한 문맥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차원에서, 1절과 마찬가지로 희구법 카탈로의 번역이 타당하다. 이 7절에 희구법을 적용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되, 새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히 누릴 때보다 더 하게 하소서!’

#### 2.4. 시편 7:6(MT 7)

NKJ, NRS, JPS, TNK는 시편 7:6의 ‘찌비타(צִיְתָא)’를 완료로 번역하였고(NKJV[“You have commanded”]; NRS[“you have appointed a judgment”]; JPS[“thou hast commanded”]; TNK[“you have ordained judgement”]), NJB는 이를 미완료로 번역한다(“Awake, my God, you demand judgement”; cf. JB[“you who demand that justice shall be done”]; TOB[“toi qui dictes le droit!”, cf.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 *La Nouvelle Bible Segond* [“Eveille-toi pour moi, toi qui as ordonné l’équité!”: ‘공평을 행하신 주여,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La Bible Segond 21* [“réveille-toi pour me secourir, toi qui établis le droit!”: ‘공의를 세우시는 주여, 나를{내 구원을} 위해 일어나소서’]).<sup>45)</sup>

크라우스는 이 ‘찌비타’가 여기에서 문맥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이것을 ‘별도의 문장’으로 직역한다: “-Gericht hast du entboten-”(‘당신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sup>46)</sup> 그는 이것을 BHS를 따라 ‘짜베(צוּהַ [šawwēh], 피엘 2인칭 남성단수 명령형)’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크라우스는 이처럼 이곳에서 ‘명령형’의 필요를 명백히 인지하고는 있었으나 아직 이것을 희구법 카탈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참조, 아르투르 바이저).<sup>47)</sup>

43) Hans Joachim Kraus, *Psalmen 1*, 166.

44) 시 4:1 (‘아네니[עֲנֵנִי]’, 응답하소서; ‘훈네니[חַנְּנֵנִי]’,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4:6 (‘느사 알레 누 오르[נְשָׂא עֲלֵינוּ אֹרַר]’,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취주소서).

45) TOB, *La Nouvelle Bible Segond*, *La Bible Segond 21*,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은 ‘toi qui’를 앞의 명령문과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듦으로써 ‘toi qui’ 문장이 갖고 있는 명령의 뉘앙스를 살린다.

46) Hans Joachim Kraus, *Psalmen 1*, 191.

47) Ibid., 191; Arthur Weiser, *The Psalms*, 134. 바이저(Arthur Weiser)도 희구법 카탈에 대한 언

NIV는 희구법으로 번역하였다(“decree justice”). 한글성경에서, 『개역개정』은 완료로 번역했으나(“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표준』과 『공동』은 희구법으로 번역하였다(『표준』: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공동』: “나의 하나님! 일어나시어 판결을 내려 주소서”). 다후드의 시편 3:7의 설명에서와 같이,<sup>48)</sup> 이 단어(6bβ절의 ‘찌비타[צוֹיִת]’) 바로 앞에 나오는 명령형(6abα절의 ‘쿠마[קוּמָה]’, ‘히나세[הִנָּשֵׂא]’, ‘우라[עוּרָה]’)은 이것이 희구법적 카탈임을 보여 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6abα절[명령형 간구] ⇒ 6bβ절[희구법 간구]>; cf. 3:7; 4:1; 9:13 + 15-16; 17:3 등. 다후드는 이 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참조, 부텐비저): “Arise, O Yahweh, in your wrath, rise up against the arrogance of my adversaries; Bestir yourself, O my God, a judgment appoint!”<sup>49)</sup> 피터 크레이기도 이와 유사한 번역을 제시한다: “Arise, O Lord, in your wrath. Lift yourself up against the furious outbursts of my enemies. Awake, O Lord my God. Declare a judgement.”<sup>50)</sup>

보강은 이것(MT 7-9장)을 ‘기원(adjunction)’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Lève-toi dans ta colère Seigneur! Sur l’adversaire en fureur dresse-toi! Eveille-toi pour moi commande et juge!”(주여 분노 가운데 친히 일어나소서! 내 적들을 향해 분노를 발하소서,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명령하며 심판하소서!)<sup>51)</sup> 희구법 카탈을 바탕으로 이 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여, 진노로 일어나시어, 내 대적들의 화를 꺾어 주소서. 하나님, 떨치고 일어나시어, 심판을 내려 주소서!” CEV도 이러한 번역을 보여준다: “Get angry, LORD God! Do something! Attack my furious enemies. See that justice is done.”

## 2.5. 시편 9:4-5(MT 5-6)

시편 9:4-5(4절: ‘야삽타[יָשַׁבְתָּ]’; ‘아시타[עָשִׂיתָ]’; 5절: ‘마히타[מָחִיתָ]’; ‘아바드타[אָבַדְתָּ]’; ‘가아르타[גָּעַרְתָּ]’)의 번역은 영어 성경의 NIV, NKJ, NRS, NJB

급 없이, šiwwitā 대신, BHS의 제안인 šawwēh (Piel 명령형)를 취하여 ‘명령형’으로 번역한다(“Appoint a judgement”).

48) Mitchell Dahood, *Psalms I*, 20; cf. James Hughes,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22 (병행적 요소 강조).

49) Mitchell Dahood, *Psalms I*, 40; Moses Bit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411, 418 (“Arise in thy wrath, O Lord, Arise to stay the fury of my foes, Awake, order that justice be done unto me”).

50) Peter C. Craigie, *Psalms I-50*, 97-98; 로스(Allen P. Ross)는 ‘엘라이(to me)’를 ‘엘리(my God)’로 수정할 경우, 희구법 완료로의 이해가 적절하다고 보았다(“Awake, my God; decree justice”). Allen P. Ross, *The Psalms*, vol. 1 (Grand Rapids: Kregel, 2011), 275.

51) E. Beaucamp, *Le Psautier Ps 1-72*, 59-61.

와 네 개의 최근 프랑스어 번역(*La Nouvelle Bible Segond*, *La Bible Segond 21*, *TOB*,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과 세 개의 한글성경(『개역개정』, 『표준』, 『공동』) 모두 희구법적 카탈을 도입하지 않았다(『표준』: “보좌에 앉으셔서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을 나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문책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 버리셨습니다”[‘완료’: cf. 『개역개정』, 『공동』]). NIV, NKJ, NRS, NJB는 완료로 번역하고 있으며,<sup>52)</sup> TNK와 CEV는 모두 현재형으로 바꾸어 번역한다.<sup>53)</sup> 이 현재형 전환은 이 문장에서 기존의 완료형 번역들과 다른 해석의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후드는 이 문장과 관련된 부텐비저의 견해에 동의하며, 이것을 시편 3:7(MT 8)에서처럼, 희구법적 카탈로 해석한다.<sup>54)</sup> 다후드는 이와 가장 가까운 희구법 카탈의 예로 시편 39:9(MT 10)의 ‘키 아타 아시타(כִּי אַתָּה עֲשִׂיתָ)’를 제시한다(“Oh that you would act!”).<sup>55)</sup>

피터 크레이기는 시편 9:4-5(시 39:9)를 완료형으로 번역한다.<sup>56)</sup> 그러나 시편 9:1-3에서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고백한다. 1-2절은 찬양과 감사에 대한 다짐이며, 3절은 그 이유(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히브리 동사 미완료’: ‘익카술루[כָּשְׁלוּ]’, they stumble; ‘요브두[אִבְדוּ]’, they perish)를 서술한다(『개역개정』: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NIV: “My enemies turn back; they stumble and perish before you”). 이러한 근거 선포 다음에, 시인에게 간절히 필요한 구체적 간구를 고백하는 것(4-6절)은 자연스럽고, 시 전체의 내용도 풍요로워진다. 7-8절에 나오는 ‘하나님 역사에 대한 시인의 확신’은 4-6절의 간구와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이러한 내용전개상의 자연스러움은 4-5절을 희구법 카탈로 이해하게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더욱이 13, 19-20절에 나오는 명령형 간구들(하나님을 향한 직간접 명령형)

52) Cf. 크라우스(Hans Joachim Kraus)도 이 동사들을 모두 완료로 번역한다(“Du hast...geführt; hast...gesetzt; hast du gescholten; vernichtet, gelöscht”). Hans Joachim Kraus, *Psalmen 1*, 215.

53) Cf. *La Nouvelle Bible Segond*과 *La Bible Segond 21*도 현재로 번역한다. *La Nouvelle Bible Segond*: “Car tu défends mon droit, tu me rends justice, tu es assis sur ton trône en juge juste”; *La Bible Segond 21*: “car tu soutiens mon droit et ma cause, tu sièges sur ton trône en juste juge”.

54) Mitchell Dahood, *Psalms I*, 53, 55; Moses Bit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419-429.

55) Mitchell Dahood, *Psalms I*, 238, 241.

56) Peter C. Craigie, *Psalms 1-50*, 114 (“for you have undertaken; you have sat upon the throne; You have rebuked; you made the wicked perish; you have wiped out”), 307 (“for you have acted”).

도 회구법 카탈을 지지해 준다(13절, ‘혼네니[חַנְנִי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르에[רֵאָה 보소서]’; 14절, ‘아사프라[אַסְפְּרָה 청유법: 나로 전하게 하소서]’; ‘아길라[אַגִּילָה 청유법: 나로 기뻐하게 하소서]’; 19절, ‘쿠마[קוּמָה 일어나소서]’; 20절, ‘쉬타 아도나이 모라 라헴[שִׁיתָ יְהוָה מוֹרָא לָהֶם 그들이 두렵게 하소서]’<sup>57)</sup>. 동일한 이유에서 6절(MT 7)의 ‘탐무(תָּמוּ)와 ‘나타슈타(נִתְשָׁתָ)와 ‘아바드(אַבַּד)’도 회구법 카탈로 번역해야 한다고 본다.<sup>58)</sup>

시편 9:4-6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여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오며, 보좌에 앉으시어 공정한 재판을 내려주소서!(4절) 이방 민족들을 질타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오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소서!(5절) 적들이 멸망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오며, 성읍들이 뿌리째 뽑히게 하시며, 그들의 기억조차 사라지게 하소서!(6절)’

## 2.6. 시편 9:15-16(MT 16-17)

NIV와 NKJ와 NRS와 NJB는 15절에서, ‘타브우(טָבְעוּ)’를 현재완료로 번역한다(NIV[“have fallen into”]; NKJ[“have sunk down”]; NRS[“have sunk in”]; NJB[“have fallen into”]; cf. JPS[“are sunk down”, 현재 수동]; TNK[“sink in”, 현재]). NIV와 NKJ와 JPS와 TNK가 ‘니르크다(נִלְכְּדָה)’를 현재 수동태로 번역하는데 반해(NIV[“their feet are caught”]; NKJ[“their own foot is caught”]; JPS[“is their own foot taken”]; TNK[“their own foot is caught”]), NRS는 이것을 현재완료 수동태로 번역한다([“has their own foot been caught”]; cf. NJB[“their feet caught in their snare”]).

『개역개정』은 모두 ‘완료’로 번역하는 데 반하여(“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표준』과 『공동』은 이 두 동사를 ‘현재’의 상태로 번역한다(『표준』: “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고, 자기가 몰래 쳐 놓은 덫에 자기 발이 먼저 걸리는구나”[cf. 『공동』]). 이것은 NIV, NKJ, JPS, TNK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여섯 개의 영어번역과 세 개의 한글 번역 성경 모두 여기에서 회구법적 카탈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sup>59)</sup>

57) MT מוֹרָה 대신 מוֹרָא로 읽는다. Cf.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Edinburgh: T & T Clark, 1906), 85; Arthur Weiser, *The Psalms*, 147-148 (“Put them in fear”); Hans Joachim Kraus, *Psalmen I*, 216-217 (“Bereite, Jahwe, ihnen ein ‘Schrecknis’”).

58) Mitchell Dahood, *Psalms I*, 53-55; *Psalms III*, 414-415.

59) TOB,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 La Nouvelle Bible Segond, La Bible Segond 21*도 회구법 카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크라우스 역시 회구법 카탈을 적용하지 않는다(Hans Joachim Kraus, *Psalmen I*, 215).

NIV와 NKJ와 JPS는 16절의 완료형 ‘노다(נָדָה)’를 ‘현재’로 해석하고 있으며(NIV[“is known”]; NKJ[“is known”]; JPS[“is known”]), NRS와 NJB와 TNK는 ‘현재완료 재귀’로 해석한다(“has made himself known”). 『개역개정』은 완료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어”), 『표준』과 『공동』은 현재형으로 번역한다(“그 모습 드러내 시고”). 여기에서 완료형 해석이 더 보편적이고 문자적임에도 현재형 해석을 취함으로써 완료형의 부적합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NIV, NKJ, NRS, JPS, TNK는 16절의 ‘노케슈(נָקְשׁוּ)’를 현재 수동으로 해석하고 있으며(is snared; are ensnared), NJB는 이것을 능동의 의미로 번역한다(“he has ensnared the wicked”). 『표준』과 『공동』은 NIV, NKJ, NRS, JPS, TNK와 유사한 번역을 하고 있으며(현재 상태), 『개역개정』은 완료로 번역한다. CEV에서도 15-16절의 번역에서 희구법 카탈 번역의 흔적은 없다.

피터 크레이기는 명백하게 완료적 의미로 번역한다: “Nations have sunk into the pit they have made. Their foot was caught in the net they hid!(15절) The Lord has revealed himself; he has executed judgement, by the action of his hands striking down the wicked(16절).”<sup>60)</sup> 존 이튼은 이들을 ‘확신의 완료(the perfect of confidence)’로 보아 ‘미래’로 번역한다.<sup>61)</sup>

다후드는 이것을 희구법 카탈로 보며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May the nations be mired in the pit they made, in the net they hid may their feet get caught(15절). May Yahweh be known by the judgement he passes; by the work of his hands let the wicked man be snared(16절).”<sup>62)</sup> 13절에 나오는 간구는 이것의 희구법적 이해를 지지한다. 13절의 간구(명령형: ‘혼네니[חַנְּנֵנִי]’; ‘르에[רָאֵה]’)에 이어서 다시 이어지는 희구법적 카탈(15-16절)은 다른 용례들에서도 반복되는 면모이다: <13절[명령형 간구] ⇒ 15-16절[희구법 간구]>; 참조, 시편 3:7; 4:1; 7:6; 17:3 해석. 부텐비저는 시편 9:4-6, 12, 15, 16하반의 동사를 희구법 카탈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며, 이 시편은 감사시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3)</sup>

희구법적 용법을 바탕으로 이 두 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여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숨겨놓은 덫

60) Peter C. Craigie, *Psalms 1-50*, 114.

61) John Eaton, *The Psalms*, 83, 85 (“The nations shall sink in the pit of their own making; in the net which they spread, their own foot shall be caught...the wicked shall be snared in the work of their own hands.”).

62) Mitchell Dahood, *Psalms I*, 54.

63) Moses But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419-429.

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하소서(15절). 주께서 행하신 공의가 널리 알려지게 하시고, 악인들은 자기가 피한 일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16절)

## 2.7. 시편 10:14

여기에서 NKJ, NJB, JPS와 『개역개정』, 『공동』은 ‘라이타(ראתה)’를 일반적 완료로 번역하나(NKJ와 NJB[“You have seen”]; JPS[“Thou hast seen it”]; *La Nouvelle Bible Segond*과 TOB[“Tu as vu”]), NIV와 NRS와 TNK는 이것을 현재 강제로 번역한다(NIV[“you, O God, do see”]; NRS[“you do see”]; TNK[“You do look”]; cf.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 [“Toi, tu vois la peine et le tourment du pauvre”]; *La Bible Segond 21* [“Tu vois cependant leur peine et leur souffrance”]). 『표준』은 이 단어를 생략하고 있다(“주님께서서는 확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확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타비트(טַבִּיט[behold: 『개역개정』 “감찰하시고”])’와 내용상 중첩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나, 이 단어를 강조용법이라는 차원에서라도 번역을 했어야 한다.

피터 크레이기는 이것을 ‘칼 완료 강조’로 번역한다(참조, NJB): “You have seen the trouble and vexation, yes you have!”<sup>64)</sup>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는 ‘라이타(ראתה)’ 뒤에 나오는 ‘키 아타(כי אתה)’가 현재의 위치(BHS)에 적절하지 않으며, 아마 본래 ‘라이타’ 앞에 위치했었을 것이라는 관찰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회구법 카탈은 고려하지 않는다.<sup>65)</sup> 그는 이것을 단순 완료로 번역한다(“Du hast Unheil und Kummer gesehen”[당신은 불행과 고난을 보셨습니다]).<sup>66)</sup> 존 이튼은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확신과 그가 미래에 그것을 직접 다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Surely you must see the trouble and misery; you regard it and will take it into your hands.”<sup>67)</sup>

다후드는 이를 다음과 같이 회구법적 카탈형으로 번역한다: “See for yourself the misery, and the sorrow behold, since you give them from your own hand!”<sup>68)</sup> 그리고 이 절의 말미에 나오는 ‘아타 하이타(אתה הית)’도 회구법으로

64) Peter C. Craigie, *Psalms 1-50*, 121, 123.

65) Hans Joachim Kraus, *Psalmen 1*, 216.

66) Ibid., 216.

67) John Eaton, *The Psalms*, 83, 86. 이튼(John Eaton)은 16-17절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미래’로 번역한다(84, 86쪽).

68) Mitchell Dahood, *Psalms 1*, 60, 65.

번역한다(“you be his helper!”). 이 절의 전후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명령형이 나온다는 사실은 이러한 희구법의 가능성을 지지해 준다(12절: ‘쿠마[קומה 일어나소서]’, ‘느사[נשא 드소서]’, ‘알 티슈카흐[אל-תשכה 잊지 마소서]’; 15절: ‘세보르[עבר 꺾으소서]’, ‘티드로슈[תרוש 찾으소서]’). 다후드는 이와 유사한 예로 시편 30:10(MT 11)을 언급한다(‘헤예 오제르 리[היה-עזר לי]’: “be my helper!”).<sup>69)</sup> CEV에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미래 용법(“you will do something”: ‘무언가 해 주소서’)으로 표출한다: “But you see the trouble and the distress, and you will do something. The poor can count on you, and so can orphans.”

부텐비저는 시편 10:14상, 16, 17의 동사들에서 희구법적 카탈의 의미를 감지하지 못함으로써, 이 시를 감사시로 오해하였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도움을 위한 부르짖음(“a cry for help”)’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0)</sup>

희구법 카탈을 적용하여 『표준』을 일부 보완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오 주여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을 보시고,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 주시옵소서! 주께서 손수 갚으시리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하나다. 오 주여, 정녕 고아를 돕는 분이 되어 주소서!’

## 2.8. 시편 10:16-17

NKJ와 NJB는 16절의 ‘아브두(אבדו)’를 완료로 번역하였고 (NKJ[“have perished”]; NJB[“have vanished”]; cf. TOB[“les nations ont disparu de son pays”]; *La Nouvelle Bible Segond* [“les nations disparaissent de son pays”]), NIV와 NRS는 미완료(미래)로 번역하였다(NIV[“will perish”]; NRS[“shall perish”]; TNK[“will perish”]; cf. JPS[“are perished”: 현재수동]). 그리고 『개역개정』이 완료로 번역한 반면(“멸망하였나이다”), 『표준』과 『공동』은 칠십인역과 불가타처럼, 미완료(미래)로 번역하였다(“사라질 것입니다”).<sup>71)</sup> 미완료(미래)를 통해서 간접적이거나 소망을 표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 번역

69) Ibid., 61, 65, 181 (RSV: “be thou my helper!”; NKJ: “be my helper!”; 『개역개정』: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표준』: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70) Moses Butenwieser,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428-429.

71) 사무엘 테리언, 캐롤 슈틀빌러, 월터 브뤼그만 등도 미완료(미래)로 번역한다. Samuel Terrien,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3), 137 (미래 심판); Carroll Stuhlmueller, *Psalms 1* (Wilmington: Michael Glazier, 1983), 93 (14-18절 전체를 신뢰의 노래로 본다.); Walter Brueggemann and William H. Bellinger, Jr., *Psal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66 (미래의 심판에 대한 소망과 믿음으로 해석).

들은 이 절에서 회구적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CEV도 16절에서 이렇게 바람과 소망을 드러낸다: “Our LORD, you will always rule, but nations will vanish from the earth.”

다후드는 명백히 회구법 카탈로 번역한다: “Let the heathen perish from his earth!”<sup>72)</sup> 피터 크레이기도 이 경우, 다후드와 같이, 회구형으로 번역한다: “Let the nations perish from his earth!”<sup>73)</sup> 이미 이스라엘 아이탄도 1929년에 쓴 논문에서 ‘아브두(אֲבָדוּ)’를 회구법 카탈로 이해한 바 있다.<sup>74)</sup> 16절을 회구형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왕이시오니, 이방 나라들이 주님의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17절에서 NKJ와 JPS와 TOB는 ‘샤마타(שָׁמַעַתָּה)’를 전통적 완료 카탈로 번역한다(NKJ[“have heard”]; JPS[“thou hast heard”]; TOB[“tu as exaucé le désir des humbles”]). NRS와 TNK는 ‘미래’로 번역하고 있으며 (NRS[“you will hear”]; TNK[“you will listen to”]), NIV는 이것을 뒤에 나오는 미완료와 연계하여 ‘미완료 현재’로 번역한다(“You hear”; cf. NJB, 현재[“you listen to”]; *La Nouvelle Bible Segond* [“Tu entends le désir des affligés”]; *Le Bible Segond 21* [“Tu entends les désirs de ceux qui souffrent”]).

『표준』은 특히 NIV(cf. NJB, *La Nouvelle Bible Segond*, *La Bible Segond 21*)와 유사한 번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들어주십니다”), 『공동』도 ‘샤마타’를 현재형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야훼여! 당신은 미약한 사람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마음 든든하게 해 주시옵니다”). 『개역개정』은 전통적 완료 카탈로 번역한다(“들으셨사오니”, cf. NKJ; JPS). 피터 크레이기도 전통적 완료로 번역한다: “You have heard the desire of the afflicted, Oh Lord.”<sup>75)</sup> 크라우스도 완료로 번역한다(“Das Begehren der Armen hast du vernommen”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sup>76)</sup>

다후드는 이를 회구형 카탈로 번역한다: “Hear, O Yahweh, the lament of the poor.”<sup>77)</sup> 15절에서 명령형이 나오며,<sup>78)</sup> 14절과 16절에서 회구법이 나오고, 17절 후반부에서 두 개의 미완료 지시형이 나오므로(‘타킨[תָּכִין]’: you will prepare; ‘타크쉬브[תִּקְשֹׁב]’: you will incline your ear), 17절 전반부의 회구법과의 연결이 자연스럽다. 17절 전반부에서 나오는 갑작스러운 완료는

72) Mitchell Dahood, *Psalms I*, 61, 66.

73) Peter C. Craigie, *Psalms 1-50*, 121, 123.

74) Israel Eitan, “Hebrew and Semitic Particles”, 25.

75) Peter C. Craigie, *Psalms 1-50*, 121.

76) Hans Joachim Kraus, *Psalmen I*, 216.

77) Mitchell Dahood, *Psalms I*, 61, 66.

78) 앞의 시 10:14 분석 참조.



전체적 문맥에 잘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17절의 내용을 희구법으로 해석할 때, 이와 연결되어 있는 18절에 나오는 ‘소원’과 잘 어울린다.<sup>79)</sup>

필자는 17-18절에 관한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안한다: ‘오 주여,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 주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시오며,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더는 겁을 주는 사람이 없게 하시길 바라나이다.’<sup>80)</sup>

## 2.9. 시편 17:3

여기에서 NKJ와 JPS와 TNK는 ‘바한타(בַּחַנְתָּ)’, ‘파카드타(פָּקַדְתָּ)’, ‘쩌라프타니(צָרַפְתָּנִי)’를 모두 완료형으로 직역을 하고 있으며(NKJ[“you have tested”; “you have visited”; “you have tried”]; JPS[“thou hast proved”; “thou hast visited”; “thou hast tried”]; TNK[“you have visited”; “proved”; “you have tested”]; TOB[“Tu as examiné mon cœur”; “la nuit, tu as enquêté”; “tu m’as soumis à l’épreuve”], cf. CEV), NIV와 NRS는 ‘바한타’와 ‘파카드타’와 ‘쩌라프타니’를 조건절의 현재형으로 번역한다(NIV[“though you prove”; “examine”; “though you test”]; NRS[“if you try”; “you visit”; “if you test”]; cf. NJB[“you prove”; “examine”; “you test”]; *La Nouvelle Bible Segond* [“Tu sondes mon cœur”; “tu l’inspectes la nuit”; “tu m’éprouves”]; *La Bible Segond 21* [“Tu examines mon cœur”; “tu le visites la nuit”; “tu me mets à l’épreuve”]). 이 현재형 번역은 종전의 완료의 번역으로는 그 의미 표출에 한계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는 3상반절에서 ‘바한타’, ‘파카드타’, ‘쩌라프타니’를 현재형으로 번역한다(“Du prüfst mein Herz, untersuchst es bei Nacht, erprobst mich - da findest du”). 그는 3하반절의 ‘zammōfī(זָמַמְתִּי: Qal 완료 1인칭단수; Piel inf. [zammôt, זָמַמְתָּ] + 1인칭 대명접미사)를 ‘zimmāfī(זָמַמְתִּי, 나의 허물)로 수정하고, 이를 ‘발 티므짜(בַּל-תִּמְצָא)’의 목적어로 번역한다(“erprobst mich - da findest du keine ‘Schandtät an mir”[- 당신은 내게서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sup>81)</sup> 그러나 여기에서도 희구법 카탈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피터 크레이기도 일반적 완료형으로 번역한다: ““You have tested my heart, you have visited by night, you have refined me’,

79) NIV, RSV, NRS가 18절에서 소원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

80) Cf. 18절, ASV, NAS, NKJ, NIV, NRS, 『공동』.

81) Hans Joachim Kraus, *Psalmen 1*, 271-272.

[but you will find nothing].”<sup>82)</sup>

다후드는 이것을 회구법으로 번역한다: “Examine my heart, prove me at night, test me with fire, [You will find no idolatry in me].”<sup>83)</sup> 『개역개정』, 『표준』, 『공동』 모두 회구법적 카탈로 번역하지 않고 있다(『표준』: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심문하시며 살살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보강은 이 절의 내용을 ‘부정적 고백(“confession négative”)’으로 보며, 간구의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밤새도록 나의 마음을 <살펴보소서>, 주님의 불같은 눈동자도 내게서 아무런 허물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sup>84)</sup> 동일한 맥락에서, 부텐비저는 시편 17:3의, ‘바한타’ 문장과 ‘파카드타’ 문장을 조건절 불변화사 없이 시작하는 조건절 문장으로 보며(“a compound conditional sentence”), ‘쩌라프타니’를 명령형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Shouldst thou try my heart, Shouldst thou search me in the night, Prove my conduct as a man, Thou wilt not find me scheming evil.”(“주여 나의 마음을 시험하고, 밤에 나를 살펴보소서, 나의 행동을 한 인간으로서 시험하소서,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결코 나에게서 교활한 죄악을 찾아 내지 못하실 것입니다.”)<sup>85)</sup> 부텐비저는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시험하기를 도전적으로 요구하는 형태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존 이튼도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You shall try my heart, when you visit me in the night; test me, and you shall find in me no evil purpose.”<sup>86)</sup>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도 아무런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내용(‘미래의 사실[‘발 티므짜’, בל-תמצא]’<sup>87)</sup>은 앞의 세 개의 동사(‘바한타’; ‘파카드타’; ‘쩌라프타니’)를 일반적 완료로 이해하여 단순히 ‘이미 일어난 사실’로 해석할 때보다, 회구법으로 이해하여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험해보라’고 도전할 때 더 강화되고 명료해진다.

더욱이 위의 세 동사(‘바한타’, ‘파카드타’, ‘쩌라프타니’) 앞에서 명령형(1절)

82) Peter Craigie, *Psalms 1-50*, 159.

83) Mitchell Dahood, *Psalms I*, 92, 94.

84) E. Beaucamp, *Le Psautier Ps 1-72*, 91 (“<sonde> mon coeur scrutant au long des nuits; rien <d’infamant> en moi ne trouvera ton feu.”).

85) Moses Buitenvliet,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479-483.

86) John Eaton, *The Psalms*, 99-100.

87) 『표준』과 『공동』은 ‘발 티므짜(בל-תמצא)’를 완료로 번역한다. 이 경우 『개역개정』이 원문의 의미(미완료형)를 더 잘 반영한다.

과 지시법(2절, ‘예제[צא] let come forth, 지시법]’; ‘테헤제나[תהינה] let look upon, 지시법]’)이 나온다는 점은 이 세 동사를 희구법적 카탈로 해석하게 하는 좋은 근거가 된다. 더욱이 1절에서 세 개의 명령형 동사(‘쉬르아[שמע] hear’; ‘하크쉬 바[הקשב] listen to’; ‘하아지나[האזינה] give ear to’)가 나오고, 이어서 부정어(‘로[לא]’)가 나오는 구조는, 3절의 구조와 유사하다(‘세 개의 희구법적 완료형[일종의 명령형] + 부정어[‘발’, לב]’). 여기에서 시인은 1절에서 일반적 명령형, 2절에서 지시법, 3절에서 희구법을 사용한다. 이 세 절은 모두 명령형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인이 표현의 다양성과 점층적 변화를 통하여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절[명령형 간구] // & ⇒ 2절[지시법 간구] // & ⇒ 3절[희구법 간구]>.88) 필자는 『표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번역을 제안한다: ‘나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나를 밤새도록 심문하시며 캐내 보소서, 내 입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89)

### 3. 결론

희구법 카탈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수용하는 이론이다. NIV가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으나(참고, 시 4:1; 7:6), 다른 번역본에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번역인 CEV(1995)는 이러한 희구법 카탈의 의미를 고려한 흔적이 상당부분 보인다(참고, 시 3:7; 7:6). 주요 영어 성경 번역이 대부분 1970-19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NEB[1961]; NIV[1979]; NKJ[1982]; NJB[1985]; TNK[1985]; NRS[1989]),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 『표준』은 1993년 초판이 출판되었고, 이 당시 아직 보수적 정서를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이것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공동』이 1977년에 출판된 것이므로, 아직 희구법 카탈 이론이 충분히 자리 잡기 전의 상황이었다.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과 『공동』에서 일부 시도된 것은 다행스

88) 이와 유사한 수사학적 면모(병행과 발전적 강조: [명령형 간구] // and ⇒ [희구법 간구])는 앞의 3:7과 4:1; 7:6; 9:15-16 해석 참조.

89) 4-5절이 내용적으로 이와 연결되며 이를 보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소단락(6-12절)의 6-9상반절에서 다시 간구가 나오고 9하반-12절에서 악인들의 죄가 구체화된다. 그리고 세 번째 소단락(13-15절)에서 다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후(13-14절), 그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한 확신을 고백한다. 이 세 소단락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절(명령형[간구] + 서술); 6-12절(명령형[간구] + 서술); 13-15절(명령형[간구] + 서술).

90) 1999년에 개정된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은 1977년판 『공동번역 성서』와 차이가 없었음(적어도 위에 분석된 시편의 경우).

러운 일이다(참고, 시 4:1; 7:6). 물론 2004년의 『새번역』과 1999년의 『공동개정』이 전면적인 개정은 아니었지만, 여기에서도 발전적인 시도를 보여 주진 못했다.

최근 프랑스어 성경(TOB[2004];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1997]; *La Nouvelle Bible Segond*[2002]; *La Bible Segond 21*[2007])에서 부분적이거나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나, 아직 충분한 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참고, 시 7:6 설명; 3:7[TOB]). 학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특히 1960년대 이전 저술들)는 아직 히브리어의 기존 문법에 대해 보수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예를 들어, 바이저, 크라우스 등[시 7:6; 10:14 설명 참조]).

그러나 최근의 다른 많은 학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여러 주석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다후드는 물론, 존 이튼, 피터 크레이기, 앤더슨, 보깡 등).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번역에서 이 이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이 회구법 카탈의 적용은 또 하나의 도전적 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여러 곳(특히 시편)에서 그 본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정서와 의도와 메시지를 더 정확히 표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주제어>(Keywords)

회구법 카탈, 한글 성경 번역, 시편, 다후드, 부텐비저.

Precative and optative Qatal, Korean Bible translation, Psalms, Mitchell Dahood, Moses Buttenwieser.

(투고 일자: 2017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7년 2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17년 4월 2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동혁, “영어와 성서 히브리어의 몇 가지 문법 용어에 대한 한국어 번역 제안”, 『성경원문연구』, 39 (2016), 148-159.
- 김이곤, 『시편 I』, 성서주석 17,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정우, 『시편 I』,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5.
- Anderson, A. A., *Psalms (1-72)*, NCBC, Grand Rapids: Eerdmans, 1972.
- Andrason, Alexander, “An Optative Indicative? A Real Factual Past? Toward a Cognitive-Typological Approach to the Precative Qatal”, *Journal of Hebrew Scriptures* 13 (2013), 1-42.
- Beaucamp, E., *Le Psautier Ps 1-72*, Paris: Gabalda, 1976.
- Briggs, C. A., *The Book of Psalms*, Edinburgh: T & T Clark, 1906.
- Brueggemann, Walter and Bellinger, Jr., William H., *Psal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 Buttenwieser, Moses, *The Psalms Chronologically Treated with a New Translation*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69 [1st ed. 1938]), 19-25 (from, “The Importance of the Tens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Hebrew Union College Jubilee Volume [1875-1925]*[1925], 89-111).
- Cook, John A., “The Biblical Hebrew Verbal System: A Grammaticalization Approac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2.
- Craigie, Peter C., *Psalms 1-50*, WBC, Waco: Word Books, 1983.
- Dahood, Mitchell, *The Psalms I: 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5.
- Dahood, Mitchell, *The Psalms II: 51-10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8.
- Dahood, Mitchell, *The Psalms III: 101-150*, AB,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70.
- Davidson, A. B., *Hebrew Syntax*, Edinburgh: T. & T. Clark, 1902.
- Driver, S. R., *A Treatise on the Use of the Tenses in Hebrew and Some Other Syntactical Question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892.
- Eaton, John, *The Psalms*, London: T & T Clark International, 2003.
- Eitan, Israel, “Hebrew and Semitic Particles: Comparative Studies in Semitic Philology”, *AJSL* 46 (1929), 22-51.
- Ewald, Heinrich, *Syntax of the Hebrew Language*, James Kennedy, trans., Edinburgh: T. & T. Clark, 1879; *Ausführliches Lehrbuch der hebräischen Sprache des alten Bundes*, Göttingen: Dieterich, 1870.
- Gesenius, W., Kautzsch, E., and Cowley, A. E., *Gesenius' Hebrew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1909.

- Joüon, Paul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o, 2006; Paul Joüon, *Gramaire de l'hébreu biblique*,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o, 1965.
- Hughes, James A., "Another Look at the Hebrew Tenses", *JNES* 29 (1970), 12-24.
- Kraus, Hans Joachim, *Psalmen 1: Ps 1-59*, BK, 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78.
- Lipiński, Edward, *Semitic Languages: Outline of a Comparative Grammar*, 2nd ed., Leuven: Peeters Publishers, 2001.
- Ross, Allen P., *A Commentary on the Psalms*,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2011-2013.
- Stuhlmüller, Carroll, *Psalms 1*, Wilmington: Michael Glazier, 1983.
- Terrien, Samuel, *The Psalms: Strophic Structure and Theolog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3.
- Waltke, Bruce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eiser, Arthur, *The Psalms*, OTL, London: SCM, 1962; *Die Psalmen*, ATD, Göttingen : Vandenhoeck & Ruprecht, 1959.

<Abstract>

## **Application of the Precative Qatal for Korean Bible Translation**

Cheol-Woo Park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precative Qatal is now well established grammar, which is accepted by many scholars. But it has not been fully applied to actual translations of the Bible. NIV accepted it partially, but most other English translations did not apply it to their translations. CEV (1995), one of the latest translations shows that much consideration was given to the precative Qatal in its translation. Most popular English translations appeared in the 70's and 80's (NEB[1961]; NIV[1979]; NKJ[1982]; NJB[1985]; TNK[1985]; NRS[1989]), and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was published in 1977, and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in 1993 when it was not yet widely accepted nor familiarized well enough to do so. The revision of the New Korean Standard Version (2004) and the Korean Common Translation (1999) did not apply it for their revisions.

Recent French translations of the Bible (TOB[2004]; *La Bible En Français Courant*[1997]; *La Nouvelle Bible Segond*[2002]; *La Bible Segond 21*[2007]) also do not show positive attempt to do so even though they show their partial recognition of the need of its application to their translations. It is also evident that a number of biblical scholars (especially those whose works date before the 1960's) tended to show conservative attitude toward the extant Hebrew grammar as we have seen in this article (for example, Arthur Weiser, Hans Joachim Kraus, et al.).

In this article, I showed the present situation of applying the precative Qatal to Bible translations focusing on some selected biblical texts, especially the first six Psalms (Ps 3, 4, 7, 9, 10, 17) of the Psalter and different opinions related to its application to each of these biblical texts, and proposed the possible Korean translation of these passages, showing the benefit of its application for clearer and deeper meaning of the texts.

We observed the present tendency to make direct application to the translation in many 'commentaries', but not so much in the 'Bibles.' I think we are in the right time now to apply it more positively to new Korean Bible translation and

exegesis. Although it is quite a challenging task, I regard it worthwhile and necessary for letting the biblical texts themselves speak their meaning, feeling, and message with more clarity.